

日 여야 '아시아 구매외교' 경쟁

일본 자민당 후임 총재로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고 있는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이 유력시됨에 따라 여야 간에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를 향한 외교 경쟁이 활발할 전망이다.

16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는 아시아 외교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오는 12월 초 중국 방문에 이어 내년 1월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다 전 장관이 자민당 총재에 당선돼 후임 총리로 취임할 경우 한 발 앞서 한·중 양국을 방문함으로써 빠르게 연내나 내년 상반기에 이를 총선 정국에 대비, 외교면에서 우

자민당 총재 유력 후쿠다 "쇼 중시 외교 펼칠 것"

오자와 민주당 총재도 중국·한국 등 연쇄방문 검토

월한 점수를 따놓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오자와 대표는 민주당의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아베 신조 정권을 끌어내린 장본인으로, 조기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실시라는 다음 목표가 순항할 경우 양당제 정착을 통한 정권교체의 속원을 풀 가능성이 크다.

정부 외교와 병행해 민간 레벨의 교류를 중시해온 오자와 대표는 중국

내에서 지난 1989년부터 '장성(長城 계획)'으로 불리는 민간 교류를 추진, 중국 공산당과는 당 간부 뿐 아니라 젊은 인재들과의 관계도 두터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는 12월 방중 때는 후진타오 국가지주석 등 지도자들과 일련의 회담을 갖는 한편으로 1천명 정도의 민간 방문단도 동행시켜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의 대표급에 폭넓은 외교를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도쿄=연합뉴스

또한 한국에서는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다 전 장관은 일중평화우호조약을 체결했던 고(故)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의 아들로 "한국, 중국과는 싸워서 좋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중국내 왕이 전 주일 대사 등 인맥도 두터운 편이다.

그는 15일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이번 총선거에서 맞대결하는 아소 다로 간사장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외교정책에 대해 "미일 동맹을 기초로 하는 아시아 중시 외교"를 펼칠 것임을 강조했다.

/도쿄=연합뉴스



“이라크전 종식하라”美 반전시위

수천명의 미국 시민들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이라크전 종식을 요구하는 반전 시위를 벌였다. 160여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날 '미군 철수', '전쟁 종식', '부시 탄핵'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백악관에서 국회의사당까지 거리 행진을 했고 일부는 의사당 앞에서 드러누운 채 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

후쿠다 “야스쿠니 참배 안하겠다”

日 자민당 선거전 공식 스타트... 후쿠다·아소 등륙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한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은 15일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당 총재 출마 기자회견 및 총리지 경쟁자인 아소 다로 간사장과 총재 후보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밝혀 총재 선거 승리로 총리에 취임하게 될 경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 했다.

후쿠다 전 관방장관은 또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해 온 헌법개정 문제

에 대해서는 “여당의 자민, 공명당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후쿠다 전 관방장관은 또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각종 개혁정책에 대해서는 “고이즈미 전 총리가 추진했던 개혁의 방향성은 지금도 변화가 없지만, 문제가 생기면 세심하게 개혁 방향을 수정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15일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로 등록한 후쿠다 전 관방장관(오른쪽)과 아소 간사장이 도쿄 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후쿠다 전 관방장관은 아소파를 제외한 당내 8개 파벌의 지지를 확보해 이번이 없는 한 당 총재 및 총리 취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총재 선거는 23일 낮 양원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된다. 양원 의원과 이도도부현 대표 등 총 528명의 과반수를 얻으면 당선된다.

/도쿄=연합뉴스

북핵 6자회담 ‘가시밭길’ 예고

WP 등 농축우라늄·對시리아 핵수출 의혹 제기 극적 돌파구 마련... 급진전 가능성도 배제 못해

19일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핵 6자회담이 북한의 대 시리아 핵시설 판매설과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둘러싼 논란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CNN 등 유력언론들은 15일도 북한과 시리아 간 핵 커넥션을 연일 제기하고 미 당국자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 최근 급진전 양상을 보이던 북한의 핵폐기 이행조치와 북미간 관계정상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14일 기자회견과 만나 “북한의 핵확산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핵확산 관련 정보도 2·13합의에 따른 전면 신고 대상”이라고 밝혀, 이번 6자회담에서 핵확산 문제를 주요의제로 다룰 뜻을 분명히 했다.

힐은 또 2·13 합의에 따른 북한의 신고대상에 “모든 핵프로그램과 시설, 물질이 포함돼야 하며,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거듭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15일 북한으로부터 나온 핵장비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시리아에 입항한 뒤 사흘만에 이스라엘이 극비에 시리아에 공습을 단행했으며, 북한측 선적 물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핵장비가 실려 있었다는 공감대가 이스라엘에서 형성돼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일각은 북한이 시리아에 핵시설(nuclear facility)을 판매

한 것을 가정사실화하면서 이 핵시설은 우라늄 농축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며 북한이 핵 과학자와 요원들을 시리아에 파견했다고 거듭 주장, 파문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JS)은 “만약 북한이 시리아에 핵시설을 이동시켰거나 단순히 확인했다면 이는 연내 핵 불능화를 약속한 북미간 합의사항 위반이며 부시 행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 17일 종료된 비핵화 실무그룹회의에서 2·13 합의 다음단계 이행에서 최대 난제로 꼽혀온 UEP 관련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고, 3국 기술팀이 북한측과 핵불능화 방안 대해 만족할 만한 협의를 벌여 이번 6자회담에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러며 “다른 말은 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 차석대사는 이어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리아와의 핵 커넥션 의혹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앞으로 시리아와의 핵 커넥션 의혹을 전면 부인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탈레반 “한국과 이면합의 있었다”

“탈레반 비난, 아프간내 한국인에 위협 초래” 아프간 정부 “한국인 납치 사령관 3명 사실”

탈레반이 지난날 한국 측과 대면 협상에서 ‘제 3의’ 인질 석방 조건, 즉 ‘이면합의 ’ 상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석방된 인질이 기자회견을 통해 탈레반을 비난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과 인근 지역에 있는 한국인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탈레반 대변인 격인 카리 유수프 아마디는 14일 “한국 측과 합의한 인질 전원석방 조건으로 그간 공개된 두 가지 외에 다른 여러 조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간 양 측은 ▲연내 아프가니스탄 주둔 한국군 전원 철수 ▲기독교 선교단체 아프가니스탄 입국 금지 등 두 가지 만이 인질 석방 조건

의 전부라고 수차례 확인했다.

탈레반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 조건 외에 한국인 인질 석방을 위한 이면 합의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첫 발언이다.

아마디는 그러나 “다른 여러 약속 가운데 언론에서 주장했던 현금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들 (제 3의) 약속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한국 측과 굳게 협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인 피랍 일행이 지난 12일 단체로 기자회견을 한 사실과 내용을 대체로 알고 있다며 “탈레반이 인질을 때리고 개종을 강요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아마디는 “한국인 인질의 그러한 태도 변화와 탈레반에 대한 비난은 아프간과 이 지역에 있는 한국인에게 매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아프간 내무부는 16일 아프간 경찰이 한국인 납치 사건에 연루된 탈레반 지역 사령관 3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내무부는 14일 한국인 인질이 억류됐던 가즈니주 카라바그 지역을 급습했다고 전하고 “피살된 사령관 3명은 한국인 납치사건에 직접 관여했던 인물”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그러나 살해된 지역 사령관들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두바이=연합뉴스

당신의 다리 누가 주물러 줍니까? 누가!!

3000만 원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무리없는 돈 100만 원만 투자

타겟 마케팅 기법으로 2007년 75000 원의 수익

그리고...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세요!

타겟 마케팅
1. 타겟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2. 타겟 마케팅의 장점
3. 타겟 마케팅의 종류
4. 타겟 마케팅의 실행 방법

타겟 마케팅
1. 타겟 마케팅의 중요성
2. 타겟 마케팅의 효과
3. 타겟 마케팅의 사례
4. 타겟 마케팅의 미래

문의 : 1566-0823

(株) 행복출판사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최원수 1위 한국 대표 마케팅 회사

문의 : (063) 527-3388